

#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더 한글서비스 톱기사](#)
  - ◇ (POLL) 달러 약세, 올해도 지속된다
  - ◇ (초점)-단숨에 115bp 까지 올라선 BEI..물가채 추격매수나 관망이나
  - ◇ (초점)-천장 뚫린 美 10년 국채 금리..원화채 금리 어떻게 반응할까
  - ◇ (시장진단)-달러와 위안의 변심에 달러/원 '출렁'..밀그림은 아직 유효

발행: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mailto: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mailto: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 건물 벽을 기어오르고 있다. (로이더/스테파니 케이 스 기자)

##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1월8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20(%)
달러 대비	1,089.8	-0.3%	-0.3%	+6.5%	유로	1.2218	0.0%	0.0%	+8.9%
100엔 대비	1,051.3	0.0%	0.0%	+1.1%	엔	103.93	-0.7%	-0.6%	+5.2%
유로 대비	1,335.3	-0.7%	-0.7%	-2.3%	위안	6.4779	0.8%	0.8%	+6.7%
위안 대비	168.77	-1.4%	-1.4%	-0.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20(%)	다우존스	31,097.97	1.6%	1.6%	+7.2%
코스피	3,152.18	9.7%	9.7%	+30.8%	나스닥	13,201.98	2.4%	2.4%	+43.6%
코스닥	987.79	2.0%	2.0%	+44.6%	S&P500	3,824.68	1.8%	1.8%	+16.3%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MSCI APxJP	695.51	5.0%	5.0%	+19.8%
국고채 3Y	0.978%	0.2bp	0.2bp	-38.4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20(bp)
국고채 5Y	1.326%	-0.9bp	-0.9bp	-14.5bp	미국채 2Y	0.137%	1.6bp	1.6bp	-144.0bp
국고채 10Y	1.729%	1.6bp	1.6bp	+3.0bp	미국채 10Y	1.119%	20.7bp	20.7bp	-99.8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20(%)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20(bp)
유가(WTI)	52.24	7.7%	7.7%	-20.5%	한국 5Y	23.1bp	1.1bp	1.1bp	+0.1bp
금(현물)	1,848.26	-2.5%	-2.6%	+25.0%	일본 5Y	15.0bp	0.0bp	0.0bp	-4.5bp
TR상품지수	2,745.95	2.5%	2.5%	+7.8%	중국 5Y	28.5bp	0.5bp	0.5bp	-3.6bp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더 한글뉴스 서비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정부 공식 홈페이지 ⇒ [CLICK HERE](#)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1월 11일(월)>

- 금감원, 2020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관세청, 1월 1-10일 수출입 동향
- 기재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10:30)
- 기재부, 확대 간부회의(15:00)

### <12일(화)>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1월호 발간(10:00),
- 기재부,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

### <13일(수)>

- 기재부, 부총리 녹실회의(07:30)
- 통계청,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8:00)
- 기재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10:00), 1차관 정례브리핑 (13:30),
- 기재부, 1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5:00)
- 한은, 2020년 11월중 통화 및 유동성(12:00)
- 한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2020년 4분기 동향 및 2021년 1분기 전망)(12:00)

### <14일(목)>

- 한은,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금융위,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설·개편 안내(06:00)
- 기재부, 부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0:00)
- 금감원, 2020.11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12:00)
- 한은, 2020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12:00)
- 기재부, 부총리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 (14:00)

### <15일(금)>

- 기재부,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07:30)
- 기재부, 1월 최근경제동향(10:00)
-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09:00)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1월 11일(월)>

- 중국, 12월 CPI · PPI (10:30)
- 유로존, 1월 섉틱스지수 (18:30)
- 미국, 12월 고용추이 (자정)
- 일본 휴장

### <12일(화)>

- 일본, 12월 은행대출 (08:50)
- 미국, 12월 NFIB 기업낙관지수 (20:00)

### <13일(수)>

-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19:00)
- 미국, 12월 CPI (22:30)

### <14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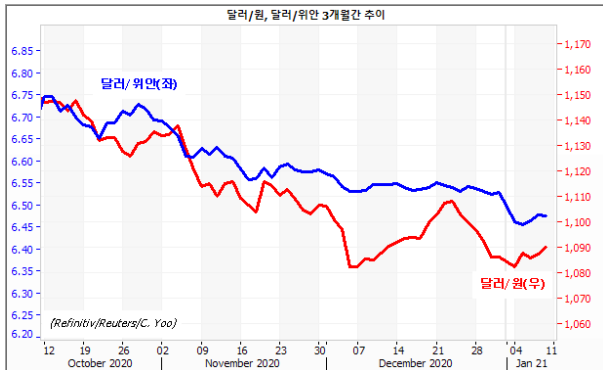
- 미국, 12월 연방예산 (04:00)
- 미국,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4:00)
- 일본, 12월 기업상품가격지수 (08:50)
- 일본, 11월 기계류주문 (08:50)
- 중국, 12월 수출입

### <15일(금)>

- 중국, 12월 주택가격 (10:30)
- 미국, 1월 뉴욕연은 제조업지수 (22:30)
- 미국, 12월 산업생산 (23:15)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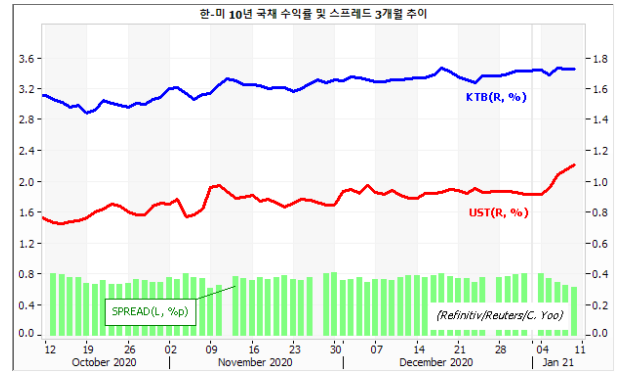
## <외환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동향을 쫓으며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080-1110 원이다.
- 미국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의 석권으로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된 이후부터 자산별 변동성은 커지고 있다.
- 국내외 증시는 무서운 기세로 신고가 랠리를 펼치는 한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1개월 만의 최고치인 1.12% 선까지 올라왔다. 한편 달러지수는 3년 만의 저점에서 반등해 90 선을 회복했다.
-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 전망이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그간 깊었던 달러 약세 포지션에 대한 조정 압력은 스물스물 확대되고 있다.
- 일각에서는 블루 웨이브가 미국 경제 회복의 차별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예상처럼 달러가 약세 일변도의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 이런 가운데 13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에 대한 관심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연은 총재들의 발언과 함께 14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프린스턴 대학교 행사 화상 연설은 더욱 주목된다.
- 중국 외환당국 제동으로 강세 속도 조절에 나선 위안화 흐름도 원화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에는 중국의 12월 수출입 통계가 나온다.
- 15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전망은 압도적이지만, 최근 금융 안정 리스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낸 이주열 한은 총재의 기자회견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채권시장 전망>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1.10% 위로 올라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향방과 주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 등을 반영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금통위는 15일에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 확실시된다. 시장이 주목하는 건 최근의 코로나 19 확산으로 한은의 경제 진단에 변화가 나타날 것이냐다. 하지만 금융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 금통위가 이전보다 강화된 입장을 내놓느냐도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 불균형의 두 축인 부동산과 주식에서 모두 이상 신호가 나타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예금,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탈탈 털어 주식 매수에 나서고 있는 데다 부동산 문제가 4월 재보선뿐 아니라 차기 정권의 향배까지 가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통위가 금융 불균형 문제를 어느 수준까지 다룰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한은은 오는 13일 '2020년 11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발표한다. 10월 기준 광의 통화량은 1년 전보다 9.7%나 늘어난 바 있다. 통계청은 이날 작년 12월 및 지난해 연간 고용 지표 발표한다. 정부는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연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설 전에 발표될 '패스트트랙 아파트 공급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POLL) 달러 약세, 올해도 지속된다

(로이터) - 달러 약세가 당초 예상보다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대부분의 외환 전략가들이 로이터 조사에서 전망했다. 신흥시장 통화로의 수익률 사냥이 그 주된 이유로 지목됐다.

달러지수는 지난해 약 7% 가량 하락하며 2017년 이후 첫 하락을 기록했는데, 새해 들어서도 최대 1%까지 하락했다. 달러는 간간히 탄력을 보이기도 했지만, 수년간 달러 켈리를 뒷받침해온 요소들이 대부분 약화되면서 반등세가 지속되지는 못하고 있다.

달러는 미국의 초저금리, 대규모 예산 및 무역적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백신 보급 이후 무역 회복에 따른 달러외 통화 강세 전망 등으로 수년래 최저 수준으로 밀려났다.

로이터가 1월 4-7일 전략가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달러의 하락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립호주은행의 개빈 프렌드 시장 전략가는 "달러가 고평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투기성 외환 투자자들은 달러 절하 베팅을 40주 연속 확대했고, 애널리스트 63명 중 약 55%인 35명은 달러 약세 추세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나머지는 2021년 말 이전에 달러 약세가 끝날 것으로 예상해, 지난 12월 조사에서 과반을 약간 넘는 응답자들이 달러 약세가 1년 안에 끝날 것으로 전망했던 것과 대조를 보였다.

한편 별도의 질문에 응답한 애널리스트 57명 중 47명은 신흥 통화들이 올해 달러보다 나은 성적을 낼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10명은 선진국 통화를 선택했다.

달러지수 바스켓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유로는 올해 말 1.25달러로 1.9% 가량 절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유로는 지난해 약 9% 절상됐고, 올들어 지금까지는 약 0.5% 올랐다.

주요 통화들 가운데 스위스프랑만 달러 대비 약 1.0% 절하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모두가 지속적인 달러 약세를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19 확진자의 지속적인 급증이 달러에 대한 대규모 절하 베팅을 억제할 것으로 내다봤다.

### (초점)-단숨에 115bp 까지 올라선 BEI..물가채 추격 매수냐 관망이냐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연초부터 손익분기 인플레이션(BEI · Breakeven Inflation Rate)이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물가연동국채 투자를 놓고 운용역들이 고민에 빠졌다.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올해 하반기쯤 경기 회복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물가채 가격에 일정 부분 선반영된 상황에서 뒤늦게나마 투자를 시작해야 하느냐가 관건이다.

▲BEI, 지난 연말 이후 20bp 이상 급등..물가 상승 전망 반영

레피니티브 데이터에 따르면 7일 오전 장외채권시장에서 물가채 10년물 20-5는 0.593%에 매도호가 나오고 있다. 전날 민간평가사 금리(0.615%)보다 2bp 가량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 0.752% 수준이었던 20-5 금리는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해 4거래일 만에 15bp 이상 빠졌다. 지난 연말 1.697%였던 국고 10년 지표물 20-9 금리는 이날 장외시장에서 1.729%에서 거래되면서 같은 기간 3.2bp 올랐다.

그 결과 같은 기간 BEI는 94bp 수준에서 115bp까지 20bp 이상 올랐다. BEI는 새해 첫 거래일에 2019년 6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100bp를 돌파한 후 추가로 15bp나 더 올랐다.

BEI 상승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됐다.

모든 상품과 서비스, 수출, 수입 물가 추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가 지난해 2분기와

3 분기에 연속으로 반등하면서 시장의 물가 상승 기대감은 점차 고조돼 왔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해 11 월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0%로 유지하면서도 내년 전망치를 1.5%로 잡았다. 코로나 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의 물가 상승률이 0.4%였던 것을 감안할 때 이같은 전망치는 한은이 향후 상당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한은은 지난해 12 월 발간한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지난해 물가 하방 압력을 키웠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 시행의 영향이 올해 사라지는 등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시장 참가자들은 한은의 물가 전망이 항상 정확했던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19 통제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기저효과, 최근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교란 요인 등이 향후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A 증권사 채권본부장은 "그동안 실제 물가보다 BEI가 저평가됐었는데 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며 "무상교육 등 관리물가 영향력이 사라질 경우 하반기부터 물가가 구조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격 포지션 구축은 부담..물가채 경쟁입찰도 변수

다만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대부분의 시장 인덱스에 과도할 정도로 반영돼 있는 만큼, BEI가 115bp까지 벌어진 상황에서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는 딜러들도 적지 않다.

보험사의 한 채권운용팀장은 "글로벌 시장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으니 곧 강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작년 말부터 물가채를 사들인 것"이라며 "다만 현재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건 모두 백신만 나오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인데 과연 1 분기와 2 분기를 거치면서 그 기대감이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지금 레벨에선 (물가채 매수로) 못 따라가겠다"며 "물가가 상승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신은 없다"고 말했다.

오는 2 월부터 격월로 이뤄지는 물가채 경쟁입찰 역시 변수다.

물가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국고채전문딜러(PD)의 인위적 밀어내기로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 불안이 촉발됐던 2017년의 사례가 재발하는 것이냐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물가채의 발행량을 짝수 월 1 천억원 이하로 한정할 만큼 경쟁입찰의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C 증권사 채권 딜러는 "계획대로라면 물가채가 두 달에 1 천억원씩 발행되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발행했던 이전과는 달라진 큰 변화"라며 "기재부가 발행 규모에 캡을 씌워놓은 상황에서 PD들도 이전처럼 입찰 전에 밀어내는 식의 전략을 쓰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며칠 만에 물가채 가격이 너무 강해져서 포지셔닝은 못 하고 보고만 있었다"며 "중기적으로 보면 BEI 상승 여건은 마련된 것 같지만 지금은 쫓아가기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채 발행량은 당분간 (격월로) 1 천억원 수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공급 부문에서 일정한 발행량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는 물가 상황이나 기관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초점)-천장 돌린 美 10년 국채 금리..원화채 금리 어떻게 반응할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투표에서 민주당이 2 석을 싹쓸이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한 이후 두드러진 리플레이션



매매 움직임 속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10%에 근접하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그동안 상단으로 여겨진 1%를 상향 돌파한 데다 이렇다 할 기술적 저지선 없이 단기간 내 1.20% 수준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국내 채권 운용역들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다.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8일 아시아 장에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09%대 후반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장에서 1.07%대로 올라선 이후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원화 채권 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전 장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 지표물 20-4 수익률은 전날보다 1.8bp 상승한 1.750%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국고 3년 지표물 20-8은 전날보다 1.5bp 오른 0.985%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3년/10년 금리 스프레드는 종가 기준 지난 2015년 6월에 기록한 전고점(75.7bp)을 돌파하며 이미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미국 장기 금리 상승세가 쉽게 꺾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정책 가능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가와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전망 등을 감안할 때 당장 금리 하락 재료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주말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변수가 되겠지만 채권시장의 분위기가 결정적으로 반전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국내 채권 딜러들은 원화 채권 금리 역시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화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슈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자산시장의 버블 논란이 관건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선도적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재정 확장 속도가 가속화되리라는 점 등을 감안해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폭에 비해 원화 채권 금리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미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A 외국계 은행 트레이딩 헤드는 "3년/10년 금리 스프레드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주식도 안 가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만 단순히 이전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많은 IB들이 연말에 미국 국채 10년 금리를 1.3~1.5%로 이야기했는데 국내 금리도 일정 수준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봐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예비비를 다 털어 넣어도 국채를 6조원~8조원 정도는 더 찍어야 하고 하반기에 재해라도 닥치면 또 국채를 찍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는데 인플레이션 압력 전망이 늘고 있는 데다 주식은 날아가고 있다"며 "3년/10년 금리 스프레드가 과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B 외은 지점 트레이딩 헤드는 "미국의 실질 기대인플레이션이 2%까지, 실질금리가 -0.5% 정도 수준까지는 갈 것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1.5% 전망이 과해 보이지 않는다"며 "원화 채권 금리는 미국 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움직이겠지만 10년 금리가 1.95%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원화채 단기물이 장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장-단기물 간 특별한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본다"며 "이미 재정거래나 커브 스티프너 포지션이 깊은 데다 스왑 베이스스가 워낙 줄어 외국인 단기 채권을 받아줄 여력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의 수출 구조가 반도체 중심에서 탈피할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보이며 국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 시중은행 이자율 딜러는 "지금 아무 자산이나 하나 붙잡고 들어가도 많은 수익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채권은 쓰레기처럼 보인다"며 "1월

에 국채 발행이 많기라도 했다면 현재 상황이 이해가 될 텐데 2, 3월에 발행이 얼마나 더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1.8%까지는 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상은 비이성적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채권금리 상승은 그만큼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통화정책이 일정 부분 정상화된다는 건 현재의 재정 확장 정책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식시장이 결국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향후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주식시장의 가치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금리가 당분간 오르겠지만 어느 수준에선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 **(시장진단)-달러와 위안의 변심에 달러/원 '출렁'..밀그림은 아직 유효**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조지아 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완승하며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된 이후 달러/원 환율은 상승 변동성을 대거 키웠다.

개장과 함께 1090 원대로 상승 출발한 달러/원 환율은 8일 오전 한때 1100 원 부근까지 올라 10 원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백악관을 비롯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 웨이브를 기대하며 그간 증시는 강세, 달러는 약세 모멘텀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작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되자 달러는 강세 전환했고, 이에 주요 통화들은 달러에 대해 약세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다만 국내외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환호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 **▲ 무엇이 달라졌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민주당의 의회 장악에 따른 재정 확대 정책 전망이 달러 약세를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신흥국 통화 중심

으로 강세 기대 속에서 위안화가 대표 주자로 꼽혔다.

연초 달러/위안은 2018년 6월 이후 최저치로 급락해 이같은 테마에 더욱 힘을 실었다.

하지만 시장 시선이 미국 국채 금리로 이동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급전환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1% 위로 상승했고, 8일 아시아 시간대에서 1.09%대 후반 수준까지 올랐다. 이에 달러지수는 3년 만의 최저치에서 반등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미국 재정적자 확대 전망이 최근 달러 약세의 연결고리였다. 과거 달러 약세 때 재정적자 확대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재정적자 확대 추세로 이 요인만으로 달러 약세를 설명하기는 다소 부족한 면도 있다"면서 "결국은 주요국들이 얼마나 먼저 경제를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근 미국 경제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해석 속에서 달러가 무작정 약세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스물스물 형성 중이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블루 웨이브로 주식 강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이머징 강세 등으로 예상돼 왔는데 미국 국채 금리가 천천히 올라야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른다면 달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달러/원 급등에 대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여파에 따른 역외 숏 커버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중국 외환당국이 위안화 강세에 대해 달러 매수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외환시장의 무질서한 변동성을 막겠다고 밝히는 등 위안화 강세가 주춤해진 정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 **▲ 전망 수정되나**

달러 약세와 위안화 강세라는 밀그림은 아직 수정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명목금리 상승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초안화적 정책에 따라 실질금리가 낮게 유지될 것이

라는 기대 속에서 코로나 19 사태를 떨치고 글로벌 경기와 교역이 회복하는 국면에서 신흥국 경제와 통화의 상대적 선전을 기대하는 전망은 유효하다.

결국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에 따른 테일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는 한 달러 약세 기조에 뚜렷한 변화는 없고, 이에 위험통화와 자산이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론 깊었던 달러 약세 포지션에 대한 조정은 언제든 수반될 수 있다.

로이터가 이달 4-7일 전략가 7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달러 하락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위안화 속도 조절에도 강세 전망도 유지되고 있다.

전승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중국 외환당국이 투기 세력들의 과도한 위안화 베팅을 경계해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위안화 국제화에 초점을 맞춰 위안화 강세 용인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방적인 하락보다는 다소 중립적인 분위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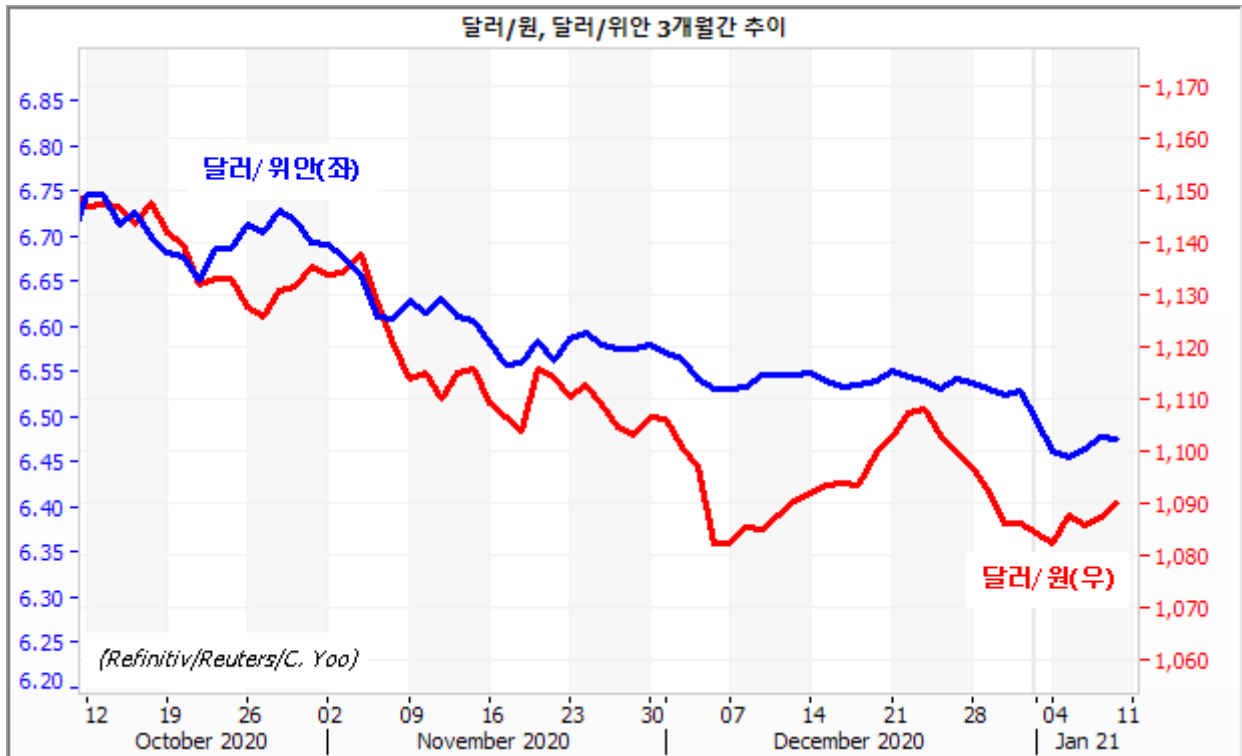
B 은행 외환 딜러는 "1080 원대에서는 숏에 대한 이익 실현과 함께 매수 요인도 커지는 등 단기 수렴점으로 작용한 듯하다. 또한 뚜렷한 펀더멘털 개선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지속적인 증시 강세 등을 살펴보면 결국 관건은 글로벌 유동성이 주된 키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장이 당분간 어지럽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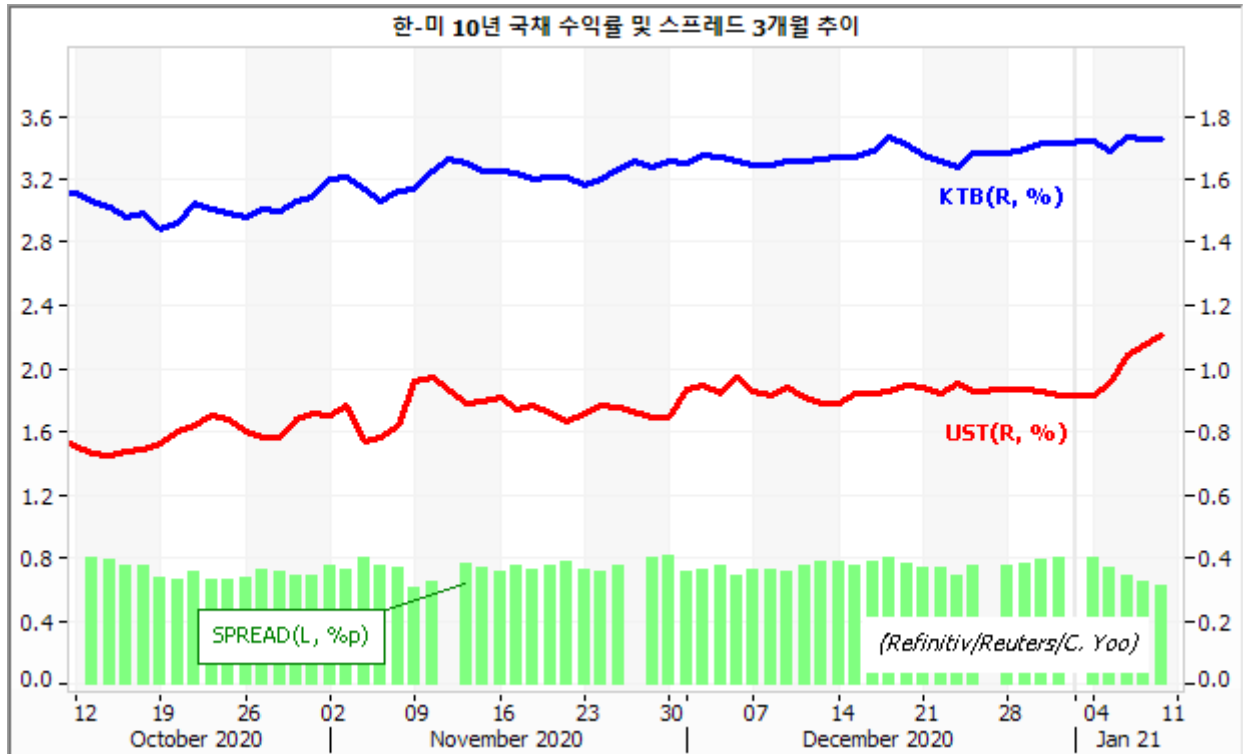
#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